미국 쌀 시장 뚫은 구례쌀의 힘…‘K 푸드’ 진화 보여줬다

직원 4명 ‘구례삼촌’ 현미 3t 선적…다음달 10t 수출도 앞둬
2021년부터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 비빔밥용 건나물 판매
소상공인 판로 개척 표본…바이어 연결 등 코트라 차원 지원을

쌀 값 폭락과 벼멸구 피해로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K-Food 인기로 해외로 전남지역 쌀이 수출되고 있다.

김밥과 비빔밥, 떡볶이 등 한국 음식 인기가 전남지역 쌀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져 폭락하는 쌀값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8일 오전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구례군 광의면 구례군농협은 미국으로 보낼 쌀 3t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Brown Rice. PRODUCT OF KOREA(현미. 한국산)’이라고 적힌 원산지증명서가 붙은 쌀이 차에 실렸다. 구례에서 출발한 쌀은 부산을 거쳐 미국 뉴욕에 도착한다.

쌀을 수출하는 농업법인 ‘구례삼촌’은 직원 4명인 미니 법인이다. 지난 2022년부터 뉴욕의 한 식품유통업체와 비빔밥용 건나물을 거래해오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4 썸머 팬시 푸드쇼(2024 Summer Fancy Food Show)’에서 구례 쌀과 나물을 활용한 쑥부쟁이 비빔밥, 버섯 비빔밥이 호평을 받았던 것이 이번 수출에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 유통업체는 현지에서 한식 등 ‘K-Food’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비빔밥 밀키트를 개발하려고 구례 쌀 수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구례삼촌은 지난달 한차례 구례 지역 쌀 3t을 미국으로 보냈고, 오는 11월 중순 10t을 추가로 수출할 예정이다. 내년 초까지 20t을 수출할 계획이지만, 지속적인 거래가 기대되는 상황인 만큼 구례 농민들에게는 호재라는 것이 구례농협의 설명이다.

소규모 지역 업체가 여러 특산품에 이어 쌀 수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남도가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 개설한 ‘전남 브랜드관’ 덕분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구례에서 최초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 입점해 쑥부쟁이·곤드레·취나물·돌산갓 등 말린 나물 등을 판매했다. 아마존을 통한 판매량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홍보효과를 가지면서 세계 곳곳의 바이어들에게서 수출 제의를 받게된 것이다.

현재 미국 뉴욕을 비롯해 LA, 독일, 브라질, 오스트리아, 헝가리, 호주 등 6개국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중국 등 일시적으로 거래한 해외 업체도 적지 않다.

수출 물량은 대기업 등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지만, 직원 4명의 소규모 업체가 수출로만 최대 연 1억여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이다.

김동환(75) 구례삼촌 이사는 “농민들은 쌀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기회를 잘 활용하면 소규모 영농기업과 농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웃었다.

이어 김 이사는 “대단한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의 수출이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인터넷만 있다면 많은 투자나 인력 없이도 세계 곳곳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에 수출용 쌀을 공급한 구례군농협조합 백일현 공동사업법인 대표는 “구례 쌀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돼 가장 깨끗하고 맛있는 쌀이다. 세계 어느 곳으로 가도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 판로를 개척해 새로운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관계자는 국내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농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해외수출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고 있지만, 정작 관계자들은 “고령의 노인이 대부분인 지역 업계 특성상 수출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소규모 업체가 전남 특산품을 해외로 활발히 수출할 수 있도록, 코트라 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바이어 연결, 샘플 등 일부 물류비 지원,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28일 구례군 광의면 구례군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친환경가공센터에서 미국으로 수출될 쌀이 화물차로 옮겨지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쌀 수출 생산자에게 수출용 포장재 및 팔레트 등 기자재 비용을 지원하며, 수출 물량에 대해 1kg 당 1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한 해외 상설판매장에서 전남 쌀을 수입할 경우 컨테이터 1개 기준 최대 2000만원의 판촉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지난해 해외 조용쌀을 제외하고 해외로 수출된 전남지역 쌀은 1214t에 달한다. 2021년 132t에 비해 9배 넘게 증가했다.

/구례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나주 동학 사죄비 건립 1주년 기념 나카츠카 교수 서거 1주기 추모식

일본측 동학기행단 등 참여…추모시 낭독 등 열려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 동학군에 대한 일본군의 만행을 사죄하는 ‘나주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 건립 1주년을 맞은 행사가 나주에서 열렸다.

28일 사죄비건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제19회 한일동학기행 시민교류회를 통해 나주 동학 사죄비 건립 1주년을 기념하고 故(고)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를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죄비 건립에 뜻을 함께한 일본측 동학기행단 9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의 나카츠카 선생 1주기 추모사를 시작으로 나천수 사죄비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의 추모시 낭독 등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나주시 죽림동 나주역사공원에 ‘나주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가 세워졌다. 사죄비 모금에는 한국의 동학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수차례 찾았던 일본 동학기행단이 118만엔을 기부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일본의 양심’으로 불리는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는 사죄비 건립에 앞장섰던 일본인이지만 사죄비 건립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29일 병환으로 숨졌다.

한편, 동학농민군 토벌 전담 부대였던 일본군 후비(後備)보병 제19 대대는 1895년 1~2월 나주 호남초토영(현 나주초등학교)에 35일간 주둔하며 동학농민군을 잔혹하게 학살했다. 이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인 명의로 동학농민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가 지난해 세워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교사·대학 교수 ‘유급 노조활동’ 보장

민간 49% 수준 ‘근무시간면제’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49% 수준에서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엔 2010년 도입됐고,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이후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구성돼 근로시간을 얼마나 면제할지, 즉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논의해왔다.

4개월여의 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서 공무원,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가 곧 현장에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 의결된 내용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시,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 특별단속

연말까지…과태료·고발 조치

광주시가 허가·신고 없이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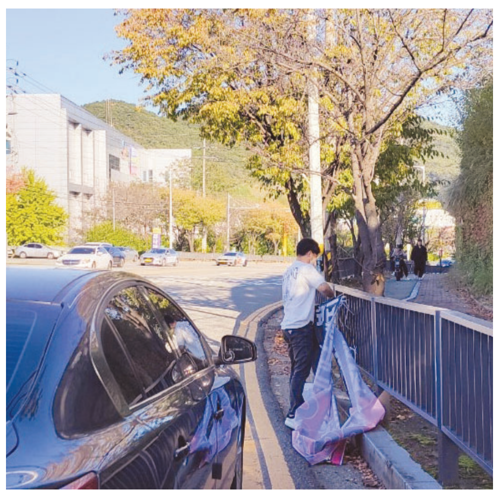
최근 신규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광주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려는 불법 현수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올 연말까지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보행에 위협을 주는 아파트분양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한 아파트분양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히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례에 대해선 중과 부과와 함께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 상관없이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그동안 단속하지 않았던 정당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현장 정비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합동점검반원들이 도심 곳곳에 게시돼 있는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합동점검반은 올해에도 지난 1일 기준 11만8600건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2023년 10월1일 기준 61만3672건)보다 80% 감소한 것으로, 무관용 특별정비 정책이 불법 현수막 감소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특별정비 시행 이후 불법현수막이 점차 줄고 있지만 최근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늘고 있다”며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정비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